

육우산업 정책 추진 방향



박흥식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국내 육우산업은 연간 생산액이 3~4천억원 수준으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육우산업은 한우산업과 낙농산업에 가려져 스스로를 알리고 가꾸지 못해 왔다. 이런 결과로 원산지 표시제 강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등 유통과정의 투명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내 육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높아진 환율 부담, 국제 곡물가격 상승, 유가상승 등에 따라 사료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생산비 부담이 커졌고,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및 한·미 FTA 타결 등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국내 육우산업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육우는 쇠고기 생산 전문 소다. 따라서 육우를 고기소로 제대로 사육해야하고,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젓소고기라는 오명도 벗겨 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육우고기의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 육우고기에 대한 정확한 소비자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를 지원하고자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육우고기 소비홍보

를 위한 TV광고, 육우데이 등에 9억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 하반기에 육우자조금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육우농가가 육우자조금을 조성하고, 소비자 홍보·교육 등을 실시한다면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농가가 조성한 금액과 매칭하여 자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육우고기가 젓소고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젓소 노산우는 가공육으로 사용토록 하여 식육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낙농·육우농가들이 지혜를 모아 대승적 측면에서 젓소 노산우의 식육시장에서의 퇴출을 검토해야 할 때다.

둘째는, 육우고기의 유통 투명화다. 그동안 육우고기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한우고기로 둔갑·판매되는 경향이 있었다. 육우의 얼굴을 찾고자 한다면 육우는 육우로서 유통·판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육

우가 육우로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육부터 도축,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소의 이력을 추적·확인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면 도입되었고, 유통단계 의무화도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쇠고기 유통과정에서의 원산지표시 강화를 위해 육류 원산지표시 적용 음식점 면적을 2008년 6월부터는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추후에는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현행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권을 농식품부까지 확대하고, 원산지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농관원의 특사경 인력도 확충해갈 계획이다.

육우농가들도 스스로 유통감시에 앞장서고, 육우고기의 둔갑을 철저히 막아야만 한다.

셋째는, 육우고기 판매망 확충이다. 육우는 한우에 비해 집산지와 규모가 작고, 지역 농축협이나 민간업체의 관심이 적은 실정으로 현재 전국단위 육우전문브랜드는 목우촌육우, (주)금천 등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대형할인마트에서 육우판매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일반음식점 등으로 개별적으로 유통되는 실정으로 육우전문브랜드 및 판매처도 매우 빈약하다.

육우전문판매점을 늘려야만 소비자에게 육우의 제 모습을 알릴 수 있다. 육우전문판매점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는 브랜드사업을 통해 전문판매점 설치 자금 등도 지원해 나가고 있다.

넷째는, 육우고기 소비처 확충이다. 육우고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해 육우고기 군납을 확대해 금년도에 1인 1일 8g이 납품되고 있다.

군납물량은 한우고기, 돼지고기 등 타품목과의 비중 등 전반적인 군납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앞으로도 육우고기 군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는, 육우고기의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이다. 육우고기도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고급화로 한우고기와 같이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육우는 한우와 달리 조숙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육우 사육



에 맞는 영양학적 사료 급여 등을 통해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육우산업에 맞는 맞춤 사양 연구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육우산업이 산업적 제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우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육우자조금을 통해 육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연구도 시급하다.



사료가격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에 사료 구매자금 1조5천억원(연리 1%)을 긴급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1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사료비가 절감되도록 하기 위해 청보리 재배사업을 확대한다. 당초 조사료 생산기반을 2015년까지 240,000ha 조성키로 했던 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겨 조성함으로써 2012년 배합사료를 대체해 조사료가 공급되도록 하여 농가의 사료 구입비가 줄어들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청보리 사료생산 지원단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대외개방 확대에 대비한 육우농가의 소득안정장치도 마련 중에 있다. 한·미 FTA 타결 등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이 증가되어 육우농가가 피해 또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여 당해년도 평균 조수입이 기준 조수입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농가소득보전 직불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농가단위별로 농가소득이 감소할 경우 그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육우농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육우산업발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육우농가와 정부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 육우산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본다. 육우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육우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육우농가도 육우산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육우산업이 제 모습을 찾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하는 육우농가 및 육우산업계 모두의 노력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육우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 ☺